



▲ 김대중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날 18일 서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치러진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에는 수산민의 국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그가 꿈꿔온 민주, 평화, 통일,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9세계 학생 UN총회개최 된다

결의문 체결후, 각 국 대통령에게 전달예정



하나의 지구촌 건설을 위해 전 세계 UN회원국 고등학생 대표를 초청하는 '전 세계 UN회원국 고등학생 대표 초청 2009 세계학생 UN총회(이하 학생 UN 총회)'가 다음달 22일부터 27일까지 국회의 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에 개최되는 '학생 UN 총

회'는 세계학생UN 본부가 주관하고, (재)국제교류재단, (사)국제우호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방안과 전세계 전쟁, 기아, 공해 없는 하나의 지구촌 건설을 위한 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총회에서 체결된 결의문은 전세계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모든 행사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한 전 세계 바람직한 미래지도자로서 세계평화에 대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총회를 통해 직접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회도 마련될 전망이다.

각국 대표 발표대회 내용을 살

펴보면, 세계 UN회원국 고등학생 대표 1명이 참여해 '세계평화, 지구환경, 인류행복을 위한 나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는 이번 총회는 전 지구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세계평화, 지구환경, 인류행복을 위해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지도자상을 제시하고 어떤 각오로 미래를 살아 갈 것인지에 대해 발표된다. 이렇게 발표된 내용은 창의력, 논리력, 발표력, 기본태도 등을 평가해 시상하게 되며 대상에 대통령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주제에 맞는 내용의 원고를 이달 30일까지

이메일(hosun5115@hanmail.net)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제출 원고 분량은 발표 시간에 맞는 5분가량이면 된다. 원고는 영어 문서파일로 작성하고 심사 결과는 다음달 5일 발표된다. 합격된 학생은 다음달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총회 일정은 10월 22일 숙소 도착을 시작으로 23일 각국 대표 발표대회와 청와대 만찬, 24일 본회 회의, 외국 대사 오찬, 한옥 마을 국악공연, 25일 기업체 및 대학방문, 26일 관문점 방문, 세종문화회관 공연 및 참가학생 각국 문화 소개가 이어지고 마지막 27일 귀국하게 된다. /한성영기자

정부, 학교 신종플루 예방대책 내보

실효성에 의문, 확진 받은 학생 중간고사 치르기도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장)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등교시 모든 학생에 대한 발열체크 실시와 손 씻기 지도를 강화하며, 교실이나 복도 등에 소독기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휴교조치에 따른 수업결손으로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터넷학습 등 부족한 공부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학교를 통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학생부터 우선 접종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학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교과부는 기획조정실장(장기원)을 반장으로 지난달 26일부터 '학교 신종플루

대책T/F'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16개 시·도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도 각각 '학교 신종플루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학생이 등교해 4시간 동안 중간고사를 치른 사실이 드러나는 등 확산방지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울산 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교 3학년 A(19)군이 27일 등교해 같은 반 학생 35명과 오전 8시30분부터 낮 12시20분까지 3과목 시험을 치렀다. 이 학생은 하루 전인 26일 지역사회 감염자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관리대책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작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짧은 등교 시간에 학교당 1, 2개 밖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귀(전자)체온계로 온도를 측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귀체온계, 비누와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보급하고,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학생신문

http://hssinmoon.com

이주의 故事成語
騎虎之勢(기호지세)
범을타고 달리는 기세,
곧장도에 그만두는 형세

2009년
9월 2일
제498호



학생신문

http://hssinmoon.com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발행인: 임영자
대표이사: 고문
고문: 변무원
인쇄인: 이승철

전화안내
대표전화 02-6085-1001
구독·광고문의 02-6085-1001
팩스 02-3482-3550

서울 04-0647호 / 1988년 4월8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33-5호 화련회관 8층
구독료 : 1부 1,000원 / 년 40,000원
(주) 학생신문사

알립니다

본지 인터넷 사이트 개편 및 도메인 변경

www.hssinmoon.com으로 접속

학생신문이 새로운 도메인(www.hssinmoon.com)과 사이트 전면개편을 통해 청소년 알권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편집자와 독자들의 상호 소통이 원활한 매체로 거듭납니다.

또한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인터넷신문이 아닌 영상취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의 가장 핵심은 W3C 국제표준화 환경에 맞추어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타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웹 접근성 의무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약시 등 누구나가 웹에서의 정보접근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가령,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의 단계적 이동과 스크린리더기를 통해 음성인식이 가능하며, 영상에 관한 텍스트제공, 화이어폭스, 오페라 등 익스플로러외의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희 학생신문은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이시형 박사가 제안하는 성공을 부르는 공부 테크닉

기업과 사회가 진짜로 원하는 인재, '공부하는 독종'으로 거듭나라!

학생신문과 함께하는 이시형 박사님 특강

• 일시 : 2009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 12시 • 장소 : 학생신문사 • 문의 : 02-6085-1001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전국서점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 1위

Stop & Think

이시형 박사 저음 | 값 13,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